

《자유연제 V 11:40~12:15》

Wolter plate를 이용한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수술

전재명 · 최재호 · 김태성 · 김기용

울산대학교 서울 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견봉쇄골관절의 탈구의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 방법을 비롯하여, 많은 수술적 방법들이 보고되어 있다. Wolter plate라는 특수한 모양의 금속판을 이용한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수술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 중의 하나로서 보고되어 있으나, 국내에서의 보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olter plate를 이용한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수술의 결과를 판정하여 그 유용성을 점검하고, 그 수술 수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7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 중앙병원 정형외과에서 Wolter plate를 이용하여 견봉쇄골관절 탈구를 수술한 총 25예 중에서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0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직후 및 마지막 추시의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쇄골 전위의 상태를 분석하였으며, 통증 및 관절 운동의 회복정도와 합병증의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예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술 후 방사선 촬영에서 모든 예에서 쇄골의 수직 전위가 회복되었다. 8예에서는 경미한 전방 전위가 있었으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추시 결과에서 6예에서 경미한 수직 전위가 발견되었으나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한 예에서 통증이 있었으나 금속판을 제거한 후에 증상이 해소되었으며, 7예에서 금속판의 돌출 부위의 불편감이 있었으나, 금속판 제거 후에 해소되었다. 16예에서는 특별한 관절 운동을 시행하지 않고도 원활한 관절 움직임이 회복되었으며, 4예에서는 관절 운동 후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였다. 감염이나 골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재수술의 예 또한 없었다.

Wolter plate를 이용하여 견봉쇄골관절 탈구를 수술하는 방법은 견봉쇄골관절에 더 이상의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교적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서,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 견관절의 기능 회복이 원활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견봉쇄골관절 탈구에 대해서 Wolter plate를 이용한 수술 방법이 추천할 만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였다.